

# 성별에 따른 학령기 후기 아동의 자기유능감, 사회불안, 우울

문소현<sup>1</sup> · 조헌하<sup>2</sup>

<sup>1</sup>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수원여자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

## Gender Differences in Self-competence,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in Upper Level Primary School Children

Moon, So-Hyun<sup>1</sup> · Cho, Hun Ha<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sup>2</sup>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 Suw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gender differences in self-competence,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in upper level primary school children. **Methods:**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180 students in grades 5 or 6 (83 boys and 97 girls).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the Revised Social Anxiety Scales for Children (SASC-R) and a Depression Instrument.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with the SPSS/PC ver 12.0 program. **Results:** The only gender difference was in depression and girls reported more depression than boys. Social competence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with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self competence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self competence which influence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Thus, enhancing self-competence could prevent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but, differences in gender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programs to enhance self-competence.

**Key words:** Self competence, Social anxiety, Depression, Gender difference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2005년 서울시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한 결과 약 25%가 정신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공포증과 사회공포증 같은 불안장애가 23.0%, 경증에서 중증 범주에 속하는 우울이 7.4%를 차지하였다(Seoul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Center Data, 2005). 이렇게 우

리나라 아동의 주요 정신건강문제로 대두된 불안과 우울은 공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으며, 우울장애 환자의 50-60%가 한 가지 이상의 불안장애를 보고하였고 일부 연구에서는 불안장애의 90% 이상이 다른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aufman & Charney, 2000). 특히 불안장애의 하위유형 중 사회불안은 주요우울장애에 선행해서 발병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Yang, Yang, & Oh, 2008), 최초 발병시기가 11.4세, 위험시기는 10대 초로 보고되고 있어(Giaconia et al., 1994) 우울장애와 더불어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신건강문제로 주목할

주요어 : 자기유능감, 사회불안, 우울, 성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 Hun Ha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 62 Omokcheon-dong, Gwonseon-gu, Suwon 441-748, Korea  
Tel: 82-31-290-8000 Fax: 82-31-290-8142 E-mail: hhuna@hanmail.net

투고일: 2010년 5월 17일 1차수정: 2010년 7월 5일 게재확정일: 2010년 7월 8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과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회불안과 우울은 낮은 사회적 수용과 자존감, 부정적 또래상호 작용, 또래관계와 부모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학업수행 능력 손상과 더불어 학교등교 거부 및 학업중지, 양극성 장애, 약물남용, 섭식장애 등 전반적인 정신사회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insberg, La Greca, & Silverman, 1998; Lee, E. S., 2007). 특히 불안과 우울이 공존하는 아동은 증상의 정도가 더 심각하고 자살발생이 더 높으며, 청소년기 불안장애는 성인초기에 우울장애로 이어져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iaconia et al., 1994; Kaufman & Charney, 2000).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과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사회불안 및 우울의 조기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사회불안 및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보호요인을 증진시키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는 아동정신 건강의 보호요인으로 유능감을 제시하고 있다(Pomerantz & Rudolph, 2003). 자기유능감은 자신이 가진 특성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및 판단, 가치감으로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Harter, 1982, 1988), 능력의 결함보다는 긍정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세분화된 자기평가개념으로(You, 1999) 자기유능감 증진은 아동의 강점을 강조하고 자기자원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자기유능감은 아동기에서 후기 청소년기에 걸쳐 발달하면서 일상생활에 대처하고 작용하는 개인 능력의 핵심으로 건강한 아동정서 발달에 영향하며 특히 학령기 후기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유지할 뿐 아니라 자아인식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보고되어 있다(Cole et al., 2001). 그런데 불안이나 우울 같은 정서장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동에게 자신과 세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초래하고 이러한 신념은 결국 자신의 유능감을 과소평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omerantz & Rudolph, 2003).

한편 자기유능감과 사회불안, 우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이 장기적으로 정신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 및 우울, 자기유능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Ohannessian, Lerner, Lerner, & Von Eye, 1999).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불안과 우울이 또래관계 및 학업성취, 부모갈등,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과 관련되어 연구되어지고 있으나(Choi, 2009; Lee, J. H., 2007; Yang et al., 2008) 자기유능감과 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였고 외국과 우리나라 모두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Yang 등(2008)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2번 사회불안과 우울을 측정하고 동일시점에 측정한 사회불안과 우울의 상관성이 고등학교 청소년보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서 일관되게 더 높았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서 1차 시점에서 측정한 사회불안증상이 2차 시점의 우울증상 증가에 영향을 주고 1차 시점에서 측정한 우울증상 역시 2차 시점의 사회불안증상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여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사회불안과 우울이 장기적으로 상호작용함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사회불안과 우울은 후기 학령기 아동의 정신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회불안과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자기유능감이 보고되었다(Uhrlass, Schofield, Coles, & Gibb, 2009). 그런데 사회불안 및 우울, 자기유능감은 남아와 여아가 다른 양상을 보일 뿐 아니라(Hankin & Abramson, 2001; Jacobs, Lanza, Osgood, Eccles, & Wigfield, 2002; La Greca & Stone, 1993) 자기유능감이 아동의 우울과 불안 발생의 성별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hannessian et al., 1999). 그러므로 사회불안과 우울에 대한 효과적 중재를 위해서는 아동의 자기유능감, 우울과 사회불안의 관계 및 우울과 사회불안에 대한 자기유능감의 영향을 성별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한편 자기유능감은 다양한 영역에 걸친 자아평가적인 사고 및 일반적인 자아가치감으로 이는 단순히 특정한 자기개념의 합 이상으로 학문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 운동적 유능감, 신체적 유능감, 행동적 유능감, 전반적 자아가치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Cole et al., 2001; Harter, 1982, 1985). 그러므로 사회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자기유능감의 영향을 정확히 사정하기 위해서는 자기유능감의 구체적인 하위영역을 사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자기유능감, 사회불안, 우울 간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불안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자기유능감 요인을 성별별로 파악하여 학령기 후기 아동을 위한 사회불안 및 우울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기유능감, 사회불안, 우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자기유능감, 사회불안,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자기유능감에 따른 사회불안,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자기유능감, 사회불안,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사회불안,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성별별로 규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학령기 후기 아동의 자기유능감, 사회불안, 우울 간의 관계와 사회불안,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별로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 N구에 소재한 B초등학교와 G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 후기 아동들로 편의표집하였으며, B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 전수와 G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 시 담임교사와 아동에게 허락을 구하고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대상자 수는 Nunnally와 Bernstein (1994)에 의하면 안정된 예측방정식을 설정하기 위해서 예측인자인 독립변수 1개당 적어도 10명의 대상자가 확보되어야 하며 독립변수가 6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인원은 성별당 60명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B초등학교 88명, J초등학교 92명으로 총 180명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남학생 83명, 여학생 97명이었다.

### 연구 도구

#### 자기유능감

자기유능감에 대한 도구는 아동이 자신의 역량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Harter (1982, 1985)의 아동용 자기유능감 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를 Lee (2003)가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척도로 학문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 신체적 유능감, 운동적 유능감, 행동적 유능감, 그리고 전반적 자아가치의 총 6개의 하위영역, 각 영역마다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36문항, 4점 척도의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학문적 유능감은 학업수행에

대한 개인의 유능성 또는 능력에 대한 지각을, 사회적 유능감은 친구들에 의해 수용되는 정도와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느끼는지를, 운동적 유능감은 여러 가지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함으로써 신체적 유능성에 대한 지각을, 신체적 유능감은 얼굴, 키, 몸무게 등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행동적 유능감은 자신의 행동방식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정도, 옳은 행동을 하는 정도, 남들과 다툼을 피하는 정도 등을, 전반적 자아가치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전체적인 판단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Lee (2003)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각 하위척도별 .76-.82이었으며, 본 연구의 도구의 신뢰도는 .95이었고,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76-.84이었다.

#### 사회불안

사회불안에 대한 도구는 LaGreca와 Stone (1993)이 개발한 개정판 아동용 사회불안 검사(Revised Social Anxiety Scales for Children, SASC-R)를 Yu (200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들이 교우관계에서 느끼는 사회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로 동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일반적인 사회불안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22문항, 5점 척도의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Yu (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90이었다.

#### 우울

우울에 대한 도구는 Cho와 Lee (1990)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 중 우울에 관한 5문항과 Choi와 Cho (1990)가 번안하고 표준화한 소아 청소년 불안 척도 중 걱정 두려움 요인 11문항을 추가하여 Kim (2008)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 4점 척도의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88이었다.

####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9년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졌고 본 연구자가 G광역시에 소재한 B초등학교, G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료를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

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답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기재요령을 구두로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220부를 배부하여 199부(90.5%)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80부(90.5%)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자기유능감, 사회불안, 우울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이용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자기유능감과 사회불안, 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사회불안, 우울을 설명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분포는 B초등학교 88명, G초등학교 92명으로 성별분포는 남학생 46.1% (83명), 여학생 53.9% (97명)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연령범위는 10-13세였고 평균 연령은 11세였다. 아버지와 동거 형태는 별거나 이혼이 5.0% (9명), 사망이 2.2% (4명)이었으며, 어머니와 동거형태는 별거나 이혼이 0.6% (1명), 사망이 0.6% (1명)이었다(Table 1).

**성별에 따른 자기유능감, 사회불안, 우울 정도**

자기유능감은 남학생(평균점평균 2.93)이 여학생(평균점평균 2.8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기유능감의 하위영역에서 행동적 유능감을 제외한 학문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 운동적 유능감, 신체적 유능감, 전반적 자아가치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불안은 여학생(평균점평균 2.16)이 남학생(평균점평균 2.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우울은 여학생(평균점평균 2.28)이 남학생(평균점평균 2.04)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03, p=.003$ ) (Table 2).

**자기유능감에 따른 사회불안, 우울 정도**

Everson, Goldberg, Kaplan, Julkunen와 Salonen (1998)이 더욱 보수적인 통계치를 사용하고자 척도의 점수를 상하위 25%로 나누어 차이를 검증한 방법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자기유능감 정도에 따른 사회불안과 우울 정도를 확인하고자 자기유능감 척도의 점수를 상하위 25%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학생의 자기유능감 상위 25% 그룹의 사회불안 점수는 평균 43.48점, 하위 25% 그룹의 사회불안 점수는 평균 57.6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89, p=.006$ ). 또한 자기유능감 상위 25% 그룹의 우울 점수는 평균 29.33점, 하위 25% 그룹의 우울 점수는 평균 39.5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66, p=.001$ ).

여학생의 자기유능감 상위 25% 그룹의 사회불안 점수는 평균 40.48점, 하위 25% 그룹의 사회불안 점수는 평균 55.7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92, p<.001$ ). 또한 자기유능감 상위 25% 그룹의 우울 점수는 평균 33.24점, 하위 25% 그룹이 평균 41.6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76, p<.001$ ). 분석결과 남녀 모두 자기유능감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사회불안과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2.** Self Competence,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by Gender (N=180)

| Variables             | Male (n=83) |      | Female (n=97) |      | t    | p    |
|-----------------------|-------------|------|---------------|------|------|------|
|                       | M           | SD   | M             | SD   |      |      |
| Self competence       | 2.93        | 0.53 | 2.86          | 0.50 | 0.86 | .389 |
| Scholastic competence | 2.92        | 0.58 | 2.78          | 0.60 | 1.49 | .138 |
| Social competence     | 3.02        | 0.61 | 3.00          | 0.64 | 0.21 | .835 |
| Athletic competence   | 2.85        | 0.60 | 2.77          | 0.59 | 1.00 | .320 |
| Physical appearance   | 2.87        | 0.70 | 2.78          | 0.67 | 0.79 | .430 |
| Behavioral conduct    | 2.87        | 0.60 | 2.90          | 0.49 | 0.44 | .663 |
| General self-worth    | 3.07        | 0.61 | 2.97          | 0.66 | 1.16 | .246 |
| Social anxiety        | 2.12        | 0.67 | 2.16          | 0.55 | 0.45 | .652 |
| Depression            | 2.04        | 0.54 | 2.28          | 0.52 | 3.03 | .003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N=180)

| Variables                | Category       | n (%)      | M (SD)      | Range |
|--------------------------|----------------|------------|-------------|-------|
| Sex                      | Male           | 83 (46.1)  | 11.0 (0.77) | 10-13 |
|                          | Female         | 97 (53.9)  |             |       |
| Age (yr)                 |                |            |             |       |
| Cohabitation with father | Cohabiting     | 167 (92.8) |             |       |
|                          | Not cohabiting | 13 (7.2)   |             |       |
| Cohabitation with Mother | Cohabiting     | 178 (98.8) |             |       |
|                          | Not cohabiting | 2 (1.2)    |             |       |

**Table 3.** Means Difference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of by the Level of Self Competence

(N=180)

|           | Male           |               |      |      |              |      |      |    | Female         |      |       |              |            |       |  |  |
|-----------|----------------|---------------|------|------|--------------|------|------|----|----------------|------|-------|--------------|------------|-------|--|--|
|           | Social Anxiety |               |      |      | Depression   |      |      |    | Social Anxiety |      |       |              | Depression |       |  |  |
|           | n              | M (SD)        | t    | p    | M (SD)       | t    | p    | n  | M (SD)         | t    | p     | M (SD)       | t          | p     |  |  |
| Upper 25% | 21             | 43.48 (11.65) | 2.89 | .006 | 29.33 (2.17) | 3.66 | .001 | 24 | 40.48 (10.70)  | 4.92 | <.001 | 33.24 (8.38) | 3.76       | <.001 |  |  |
| Lower 25% | 21             | 57.62 (19.19) |      |      | 39.57 (1.75) |      |      | 24 | 55.79 (11.10)  |      |       | 41.63 (7.18) |            |       |  |  |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Major Variables (N=180)

| Variables             | Male            |                 | Female          |                 |
|-----------------------|-----------------|-----------------|-----------------|-----------------|
|                       | Social anxiety  | Depression      | Social anxiety  | Depression      |
| Self competence       | -.50<br>(<.001) | -.54<br>(<.001) | -.56<br>(<.001) | -.37<br>(<.001) |
| Scholastic competence | -.34<br>(.001)  | -.43<br>(<.001) | -.33<br>(.001)  | -.15<br>(.149)  |
| Social competence     | -.53<br>(<.001) | -.47<br>(<.001) | -.56<br>(<.001) | -.29<br>(.004)  |
| Athletic competence   | -.39<br>(<.001) | -.35<br>(.001)  | -.35<br>(<.001) | -.14<br>(.181)  |
| Physical appearance   | -.45<br>(<.001) | -.53<br>(<.001) | -.49<br>(<.001) | -.36<br>(<.001) |
| Behavioral conduct    | -.36<br>(.001)  | -.49<br>(<.001) | -.46<br>(<.001) | -.39<br>(<.001) |
| General self-worth    | -.46<br>(<.001) | -.46<br>(<.001) | -.55<br>(<.001) | -.49<br>(<.001) |
| Social anxiety        |                 | .62<br>(<.001)  |                 | .55<br>(<.001)  |

**자기유능감, 사회불안, 우울 간의 관계**

자기유능감과 사회불안,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자기유능감이 사회불안( $r=-.50, p<.001$ ), 우울( $r=-.54, p<.001$ )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유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이 사회불안,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불안과 우울은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r=.62, p<.001$ ).

여학생은 자기유능감이 사회불안( $r=-.56, p<.001$ ), 우울( $r=-.37, p<.001$ )과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불안과 우울은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r=.55, p<.001$ ). 자기유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이 사회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울은 자기유능감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유능감( $r=-.29, p=.004$ ), 신체적 유능감( $r=-.36, p<.001$ ), 행동적 유능감( $r=-.39, p<.001$ ), 전반적 자아가치( $r=-.49, p<.001$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자기유능감이 사회불안,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불안,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유능감 하위 영역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전에 다

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0.80 미만 이었고 독립변인 간의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387-.665로 0.3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07-1.394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한 Durbin-Watson값이 1.788-2.157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사회불안, 우울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자기유능감 변수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에서 사회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유능감 하위영역 변수는 사회적 유능감으로 사회불안을 28% 설명하였고,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유능감 하위영역 변수는 신체적 유능감으로 우울을 28.3% 설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유능감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두 변수가 우울을 3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여학생에서 사회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유능감 하위영역 변수는 사회적 유능감으로 사회불안을 31.9% 설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반적 자아가치가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두 변수가 사회불안을 35.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유능감 하위영역 변수는 전반적 자아가치로 우울을 24.2% 설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문적 유능감, 운동적 유능감순으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세 변수가 우울을 32.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결과 자기유능감은 남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고 자기유능감의 하위 영역 중 행동적 유능감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점수에서 남학생이 더 높았다. 이는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자기유능감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Lee (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성별 차이가 전체적인 자기유능감보다는 자기유능감의 구체적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Cole et al., 2001; Jacobs, Lanza,



Table 5. Predictive Variables on Social Anxiety & Depression

(N=180)

| Variables      | Male (n=83)           |        |                |      |       | Female (n=97) |        |                |      |       |       |
|----------------|-----------------------|--------|----------------|------|-------|---------------|--------|----------------|------|-------|-------|
|                | $\beta$               | t (p)  | R <sup>2</sup> | F    | p     | $\beta$       | t (p)  | R <sup>2</sup> | F    | p     |       |
| Social anxiety | Scholastic competence | -0.530 | -5.63          | .28  | 31.65 | <.001         | -0.355 | -2.82          | .319 | 25.56 | <.001 |
|                | Social competence     |        | (<.001)        |      |       |               | (.006) |                |      |       |       |
|                | Athletic competence   |        |                |      |       |               |        |                |      |       |       |
|                | Physical appearance   |        |                |      |       |               |        |                |      |       |       |
|                | Behavioral conduct    |        |                |      |       |               |        |                |      |       |       |
| Depression     | General self-worth    |        |                |      |       |               | -0.278 | -2.21          | .352 |       |       |
|                |                       |        |                |      |       |               | (.030) |                |      |       |       |
|                | General self-worth    |        |                |      |       |               | -0.808 | -6.40          | .242 | 14.96 | <.001 |
|                |                       |        |                |      |       |               | (.001) |                |      |       |       |
|                | Scholastic competence |        |                |      |       |               | .289   | 2.56           | .295 |       |       |
|                |                       |        |                |      |       |               | (.012) |                |      |       |       |
|                | Athletic competence   |        |                |      |       |               | .217   | 2.05           | .325 |       |       |
|                |                       |        |                |      |       |               | (.043) |                |      |       |       |
|                | Physical appearance   | -0.389 | -3.45          | .283 | 19.18 | <.001         |        |                |      |       |       |
|                |                       |        | (.001)         |      |       |               |        |                |      |       |       |
|                | Social competence     | -0.248 | -2.20          | .324 |       |               |        |                |      |       |       |
|                |                       |        | (.031)         |      |       |               |        |                |      |       |       |
|                | Behavioral conduct    |        |                |      |       |               |        |                |      |       |       |

Osgood, Eccles, & Wigfield, 2002)와는 상이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증가에 따라 성별차이를 보이는 자기유능감의 발달특성(Jacobs et al., 2002)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일시점에서 자기유능감을 측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성장발달과정에 따라 자기유능감을 측정하여 성별에 따른 자기유능감의 발생 시기 및 변화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사회불안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나 남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6-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을 분석한 결과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Ginsberg 등(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La Greca와 Lopez (1998)는 사회불안에서 보이는 성별차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걱정이 더 많고 타인의 의견을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중요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성별차이가 없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양육방식과 비교하여 볼 때 현재 양육방식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보다는 칭찬과 같은 긍정적 피드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우울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우울을 분석한 결과 성별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보고한 Lee (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Giaconia 등(1994)은 주요우울장애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2년 빨리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아동기 우울 관리에서 성별뿐 아니라 발병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함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에게 발생하는 우울을 조기발견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령기 초기 여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우울증상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기유능감에 따른 사회불안, 우울을 분석한 결과 성별과 상관없이 자기유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사회불안과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과 우울이 낮은 자기유능감 인지와 연관성이 높다는 Smári, Pétursdóttir와 Þorsteinsdóttir (200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실례로 Chansky와 Kendall (1997)은 비불안장애 아동보다 불안 장애 아동이 사회불안이 더 높고 스스로 사회적 자기유능감이 더 낮다고 인지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부정적 자기인지는 또래친구가 자신을 수용하고 좋아해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기대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불안과 우울의 예방 및 효과적 중재를 위해서 자기유능감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자기유능감이 낮은 아동의 경우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이 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대처하는지 이해해야 하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자신에 대한 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유능감이 향상되면 관련요인인 학령기 아동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학령기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자기유능감, 사회불안, 우울 간의 상관관계에서 사회불안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기유능감의 모든 하위영역과 역상관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우울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자기유능감의 하위영역에서 성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성별에 상관없이 자기유능감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낮고 우울의 경우 남학생은 학문적 유능감과 운동적 유능감을 포함한 자기유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고 여학생은 자기유능감 하위영역 중 사회적 유능감, 신체적 유능감, 행동적 유능감, 전반적 자아가치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불안과 우울 모두 자기유능감과 관련이 있다는 Uhrlass 등(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자기유능감 하위변수로 남학생은 사회적 유능감이, 여학생은 사회적 유능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가 확인되었고 우울을 설명하는 자기유능감 하위변수로 남학생은 신체적 유능감과 사회적 유능감이, 여학생은 전반적 자아가치, 학문적 유능감, 운동적 유능감이 확인되었다. 이는 초기청소년기 불안 및 우울 발생에 있어 자기유능감의 하위영역이 남녀 간에 다르게 영향한다는 Ohannessian 등(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각각 우울과 불안을 설명하는 자기유능감 하위영역이 낮은 경우 우울 및 사회불안으로 이환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후기 학령기 아동을 위한 우울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남학생은 신체적 유능감과 사회적 유능감을, 여학생은 전반적 자아가치 및 학문적 유능감, 운동적 유능감을, 사회불안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시에는 남학생은 사회적 유능감을, 여학생은 사회적 유능감과 전반적 자아가치를 중점적으로 사정하고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유능감은 남학생의 사회불안과 우울뿐 아니라 남녀 모두의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공통된 요인으로 확인되어 사회불안이 무엇보다도 낮은 사회적 유능감과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Chansky & Kendall, 1997)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이 낮을수록 또래관계의 질과 또래수용이 높으며(Lee, J. H., 2007) 또래관계가 학령기 아동의 주요 발달과제인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별과 상관없이 아동의 사회불안 예방을 위해 자기유능감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본 연구결과들은 후기 학령기 아동에서 발생하는 사회불안과 우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자기유능감이 아닌 성별에 따라 자기유능감의 하위영역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중재의 개발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유의한 결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횡단적 연구로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불안, 우울, 자기유능감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측정하지 못했으므로 종단연구를 통해 발달단계에 따른 이들 변수간의 변화를 확인하고 각 연령에 따라 사회불안과 우울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유능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후기 학령기 아동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상자 수의 제한으로 상대적으로 성별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학령기 후기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학년과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령을 포함하여 방법론적 문제를 보완한 추후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시기를 고려하여 사회불안, 우울, 자기유능감을 측정하지 못했으므로 성별 차이에 따른 중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사회불안, 우울, 자기유능감의 성별차이가 나타나는 연령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성별에 근거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사회불안, 우울의 관련요인으로서 자기유능감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학령기 후기 아동의 우울 및 불안장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 180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자기유능감, 사회불안,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성별별로 자기유능감 하위영역이 사회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자기유능감은 남학생이 높고 사회불안과 우울은 여학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우울만이 남녀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기유능감에 따른 사회불안, 우울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기유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사회불안과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유능감, 사회불안, 우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자기유능감과 사회불안, 우울이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사회불안과 우울은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불안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기유능감의 모든 하위영역과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은 남학생의 경우 자기유능감의 모든 하위영역과 역상관관계를, 여학생은 사회적 유능감, 신체적 유능감, 행동적 유능감, 전반적 자아가치만 우울과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자의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자기유능감 하위영역 변수로 남학생은 사회적 유능감이, 여학생은 사회적 유능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가 확인되었고, 우울을 설명하는 자기유능감 하위영역변수로 남학생은 신체적 유능감과 사회적 유능감이, 여학생은 전반적 자아가치, 학문적 유능감, 운동적 유능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사회불안 및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유능감의 하위영역에서 성별을 고려한 중재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추후에는 사회불안 및 우울의 효과적인 예방 및 중재를 위해 표본의 대표성 및 연구방법상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자기유능감이 사회불안 및 우울의 성별 차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와 자기유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사회적 변수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Chansky, T. E., & Kendall, P. C. (1997). Social expectancies and self-perceptions in anxiety-disordered childre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1*, 347-363.
- Cho, S. C., & Lee, Y. S. (1990).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 943-956.
- Choi, J. S., & Cho, S. C. (1990). Assessment of anxiety in childre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 691-702.
- Choi, S. Y. (2009). *The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hips among interparental conflic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dolescent's social anxiety, and adolescent's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Cole, D. A., Maxwell, S. E., Martin, J. M., Peeke, L. G., Seroczynski, A. D., Tram, J. M., et al. (2001).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72*, 1723-1746.
- Everson, S. A., Goldberg, D. E., Kaplan, G. A., Julkunen, J., & Salonen, J. T. (1998). Anger expression and incident hypertension. *Psychosomatic Medicine, 60*, 730-735.
- Giaconia, R. M., Reinherz, H. Z., Silverman, A. B., Pakiz, B., Frost, A. K., & Cohen, E. (1994). Ages of onset of psychiatric disorders in a community population of older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3*, 706-717.
- Ginsberg, G. S., La Greca, A. M., & Silverman, W. K. (1998). Social anxiety in children with anxiety disorders: Relation with social and emotional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175-185.
- Hankin, B. L., & Abramson, L. Y. (2001). Development of gender difference in depression: An elaborated cognitive vulnerability-transactional stress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27*, 773-796.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 (1988).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Jacobs, J. E., Lanza, S., Osgood, D. W., Eccles, J. S., & Wigfield, A. (2002). Changes in children's self-competence and values: Gender and domain differences across grades one through twelve. *Child Development, 73*, 509-527.
- Kaufman, J., & Charney, D. (2000). Comorbidity of mood and anxiety disorders. *Depression and Anxiety, 12*, 9-76.
- Kim, H. Y. (2008). *The effect of mothers'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children's perfectionism and children's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 La 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83-94.
- La Greca, A. M., & Stone, W. L. (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17-27.
- Lee, E. S. (2007).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576-585.
- Lee, J. H. (2007). *The effect of the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 and academic achievement o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Lee, T. H. (2004). Relationship of depression, irrational faith and the school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 223-245.
- Lee, Y. S. (2003). *The relation of parent's acceptance-rejection to children's assertiveness, perceived self-compet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NY: McGrawHill.
- Ohannessian, C. M., Lerner, R. M., Lerner, J. V., & Von Eye, A. (1999). Does self-competence predict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Adolescence, 22*, 397-411.
- Pomerantz, E. M., & Rudolph, K. D. (2003). What ensues from emotional distress? Implications for competence estimation.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4*, 329-345.
- Seoul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Center Data. (2005). *The 2005 Seoul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urvey*. Retrieved January 28, 2010, from <http://youthlove.blutouch.net>
- Smári, J., Pétursdóttir, G., & Þorsteinsdóttir, V. (2001).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in relation to perceived competence and situational appraisal. *Journal of Adolescence, 24*, 199-207.



- Uhrlass, D. J., Schofield, C. A., Coles, M. E., & Gibb, B. E. (2009).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prospective chang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0*, 329-337.
- Yang, Y. R., Yang, J. W., & Oh, K. J. (2008).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symptoms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 35-50.
- You, E. K.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s perceived competence and attitude toward school lear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Yu, K. H. (2003). *Effects of a cognitive-behavioral group counseling program social anxiety,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of preadolescents in a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